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

김민희** · 이윤수*** · 이지혜**** · 송지훈***** · 명준희***** · 유명현*****

요약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교육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식, 전달체계 등이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19 시기 대응을 위하여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새로운 교육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방식 개선, 지원체계 재설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드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복지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복지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IPA 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요구분석은 기존의 교육복지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점에서 드러난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요구도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위드코로나19, 교육복지, 요구분석, 정책적 제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3 088191)

** 대구대학교 교수(minhee1016@gmail.com)

*** 한양대학교 교수(liy86@hanyang.ac.kr)

**** 서원대학교 교수(wisdom56@hanmail.net)

***** 한양대학교 교수(jhsong77@hanyang.ac.kr)

***** 송의여자대학교 교수(jhmyung80@swec.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lithe02@hanyang.ac.kr)

1. 서론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정보격차의 발생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박미희, 2020; 강혜정, 2021). 이로 인해 기존의 취약계층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새로운 교육적 취약계층이 나타나면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남기, 2021).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은 의무교육, 교육급여, 국가 장학금 등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학생, 다문화 및 탈북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 농어촌교육지원 등 교육여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정책이 실제 취약계층의 교육소외를 보완하고 계층 또는 집단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 및 보완해야하는 시점이다(권연하 외, 2021; 이예슬 외, 2021).

특히 교육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등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및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과정, 즉 아래로부터(bottom-up)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요구분석(need analysis)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촘촘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교육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방식, 전달체계 등이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체계 재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복지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복지정책을 위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복지정책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만족도 요구분석의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교육복지 수요자 요구분석의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을 통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만족도 요

구 분석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통해 교육복지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요구분석은 기존의 교육복지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다양한 대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출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코로나19와 새로운 사회변화로 인해 교육복지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교육 취약·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복지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복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취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부터 교육과정과 결과에까지 내재되어있는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구축된 통합지원시스템이다. 2003년 전신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교육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 부처 내·간의 다양한 교육복지 유관사업이 확대되었다. 교육복지 관련 정책이 이행되며 발생한 성과와 한계점에 따라 사업 1단계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사업 2단계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이어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까지 발전과정을 거쳤다(송지훈 외, 2021).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요구사항에 따른 발전방안의 체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성열관 외, 2021; 송지훈 외, 2022).

이희현 외(2019)는 현시점에서 그간에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 및 추진과제를 평가하고, 각 정부별로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정책과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 사업을 평가 영역별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정책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책목표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보편적 교육복지와 선별적 교육복지를 포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들었다.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과업 중심적이었거나, 한편으로는 추상적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용되지 못한 것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정책의 지향점은 선별적 지원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

였으며, 상대적 격차 해소와 절대적 수준 보장, 생활지원과 학습지원 또한 조화롭게 강조해 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향후에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절대적 수준 보장과 상대적 격차 해소, 학습지원과 생활지원,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과정 및 결과의 평등을 조화롭게 지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그간에 추진되어 온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성과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확산, 교육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실질적·종합적·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복지 강화, 교육복지 대상의 점진적 확대,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한계는 분절적 정책 추진에 따른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 중장기적 교육복지 추진 정책·전략의 부재 및 부족, 교육복지의 개념·비전·방향 설정의 혼란,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지원 부족, 법과 제도 미비에 따른 지속성, 안정성, 체계성 부족, 교육복지 거버넌스 및 컨트롤 타워 부재, 전문 인력의 전문성, 양성, 배치 부족과 이들의 빈약한 처우와 지위, 성과 관리 체제 부족, 하향식 사업 중심으로 인한 학교의 피로도 증가로 대부분 교육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여건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

2) 위드코로나19 시기와 교육복지

(1) 위드코로나19 시기에의 교육복지 개념 검토 필요

교육복지의 개념은 학자들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취약성과 교육적 취약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복지 대상의 차원에서 교육복지의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성식 외(2020)는 사회적 취약성(a)과 교육적 취약성(b)이 중첩되는 대상(c)만을 고려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교육복지이며, 사회적 취약성과 교육적 취약성의 교집합을 포함한 전체(a+b+c)를 넓은 의미의 교육복지로 제안하였다. 이희현 외(2020)는 ‘교육복지’를 넘어서 ‘학습복지’로의 전환, 기존의 결핍모델에서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김경애 외(2020)는 교육복지 지원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학습생활복지’를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교육복지 및 학습복지의 개념 및 영역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복지 또는 학습생활복지 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교육복지 개념을 대체하기에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19 시기에는 좁은 의미의 교육복지를 넘어 학습, 건강, 여가 및 활동, 안전,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 환경 등을 포함하는 더 포괄

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정책 개념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새롭게 시행된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에서는 시도별 운영 현장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 영역을 보다 강조하고 운영 현장에 맞는 통합·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다(송지훈 외, 2022).

(2) 위드코로나19 시기에의 교육복지 지원 기준 조정 필요

현재 교육복지 지원대상은 가장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교육비지원은 중위소득 75%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송지훈 외(2020)와 김민희(2020)는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교육욕구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위소득 75%까지 교육급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송지훈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경우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기존의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최대 75% 이하까지도 고려 가능)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보편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기준 뿐 아니라 교육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 기준 개발이 필요하며, 선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적 접근이 아닌 기존의 소득기준으로 접근 하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기준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더불어 위드코로나19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육복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새로운 지원 기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위드코로나19 시기에의 교육복지 지원범위 및 항목 확대 필요

교육복지 지원항목은 현금, 현물, 바우처, 사업(프로그램)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원범위에 대한 기준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에 제한되어 있다. 이선호 외(2018)와 송지훈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급여 체계 개편을 위해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범위 및 항목이 실제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민희(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시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항목을 분석한 결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기존의 지원항목 및 지원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편중된 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교육취약집단이 오히려 소외받을 수 있으므로, 위드코로나19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복지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가 필요하다.

(4) 위드코로나19 시기에의 교육복지 전달체계 개선 필요

송지훈 외(2020)의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육급여의 전달체계는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학부모 계좌입금, 학생복지카드, 학교 예산집행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교육급여 항목별로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학부모 계좌입금 방식과 학교회계를 통한 예산집행 방식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드코로나19 시기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교육복지 전달체계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중앙교육복지지원센터 등의 역할 및 기능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나아가 일반자치단체(시·도 수준의 광역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시·도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육복지 역시 주요한 자치단체 사업이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전달 체계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교육복지사(또는 지역사회전문가, 교육복지 조정자) 등 전문 인력 확대 및 역할 제고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 장기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1) 설문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다음 3단계 절차를 통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진은 교육복지 요구와 관련한 보고서, 학술논문, 정책자료, 관련 문헌 등에 대해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1차 요구분석 설문지를 구축하였다. 2단계에서는 요구분석 설문지에 대해 교육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 내용을 검토하고, 의미나 문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요구분석 설문지에 대해 교육복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고, 연구진과 회의를 거쳐 설문지와 설문대상을 확정하였으며, FGI에서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의견 및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설문 문항에 대한 FGI 결과

내용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
<p>1.1. IPA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p> <p>중요도, 시급성, 현재 수준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와 시급도를 통합해야한다는 의견 ■ 시급도만 남기자는 의견 ■ 중요도와 시급도를 분리해야한다는 의견
<p>응답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으셨나요?</p> <p>문항을 보고 직관적으로 응답이 가능하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수 간소화 ■ 문항 중복 및 비슷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숙식 및 보호처 지원이나 코로나19 대응 발생된 생활보호 지원, 대응 긴급 가정 구호 지원 문항 내용 유사 ■ 코로나19 대응 교육복지실 운영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계획정도, 운영 정도로 생각 -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 가능함 ■ 문항 추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의지 부분 수정 필요
<p>1.2. IPA 설문 문항 내용의 타당성</p> <p>서면으로 주신 의견 외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p> <p>서면 의견 중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경우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지원 업무' 문항 수정 필요 ■ '학교교육과정 참여비용, 학교교육활동 참여비용, 학교교육활동 부가비용' 문항 수정 필요 ■ '코로나19 대응 숙식 및 보호처 지원' 문항 수정 필요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코로나19 대응 지역자원 현황 파악 및 연계가능 자원 발굴,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문항 구체화 필요 ■ '코로나19 대응 학습클리닉 지원' 문항 구체화 필요 ■ 교육복지사 지원을 위한 문항 추가 ■ 각 시도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대응체계, 방법 등) 도출할 수 있는 오픈 문항 필요
<p>1.3. 설문대상 범위</p> <p>본 설문은 교육복지사, 교육복지 업무 담당교원, 교육복지부장,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조사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없음

[표 2] 설문 문항 내용

영역	설문 문항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결식 및 보호처 지원, 긴급 가정 구호 물품 지원, 바우처 및 현금지원 등) ■ 방역 및 건강 지원(마스크, 손세정제)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원격학습 기기 구입, 인터넷 사용료 등) ■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상담 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p>학교 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단위 교육복지체계 구축 강화 ■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생 방역수칙 안내 지원 ■ 정보 DB(학생 데이터, 물적·인적 프로그램, 사례관리 자료 등) 구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 필수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수업 교재비, 학용품비 등) ■ 추가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방과후 활동 참여 비용, 문제집·참고서 구입 등) ■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박물관, 미술관 방문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 밖 교육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등) ■ 학생대상 장학금 지급(꿈사다리 장학금, 외부 지역사회 장학금 등) ■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p>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정보 제공 ■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공동사업 기획·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체계화 ■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의 학생 사례관리 지원단 운영 ■ 주기적인 교육복지 요구조사 실시 및 분석 ■ 교육복지 지원대상별 지원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교육취약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 대학생 멘토링 지원(개별학생 또는 소그룹) ■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 ■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의 교육복지 담당자, 단위학교 내 교육복지업무 관련 교직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역아동센터에 교육복지 요구분석과 관련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인 2021.07.12.~2021.07.23. 동안 각 17개 시도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연구소에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표집 대상은 [표 3]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설문조사 대상자

구분	표집 대상		소속	모집단	표본(명)
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일반 행정직, 장학사, 교육복지사	본청	56명	293
			교육 지원청	398명 (145개 지원청)	
학교	초·중·고 교사	교장, 교감, 교육복지부장, 교육복지사, 교육복지담당교원 (보건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	중점학교	1,755개교	4,762
			연계학교	1,720개교	
			일반학교	8,239개교	
지역	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센터장, 팀장, 기관 담당자	다함께 돌봄센터	221개소	302
			지역아동센터	4,140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23개소	
가정	학부모	학부모			1,023
합 계					6,380

[표 4]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청)

	항목	빈도수(n)	백분율(%)
소속	본청	39	13.3
	교육지원청	166	56.7
	기타	88	30.0
	합계	293	100.0
직위	일반행정직	55	18.8
	장학사	21	7.2
	교육복지사	114	38.9
	기타	103	35.2
	합계	293	100.0
지역	서울	35	11.9
	부산	24	8.2
	대구	14	4.8
	인천	2	0.7
	광주	1	0.3
	대전	6	2.0
	울산	13	4.4
	세종	5	1.7

경기	37	12.6
강원	21	7.2
충북	14	4.8
충남	44	15.0
전북	3	1.0
전남	0	0.0
경북	35	11.9
경남	34	11.6
제주	5	1.7
합계	293	100.0

[표 5]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학교)

	항목	빈도수(n)	백분율(%)
소속	초등학교	2,500	52.5
	중학교	1,563	32.8
	일반고등학교	459	9.6
	특성화고등학교	211	4.4
	기타	29	0.6
	합계	4,762	100.0
직위	관리자(교장, 교감)	1,693	35.6
	교육복지부장	803	16.9
	교육복지업무 담당교원	1,089	22.9
	상담교사	257	5.4
	교육복지사	584	12.3
	기타	336	7.1
	합계	4,762	100.0
지역	서울	1,150	24.1
	부산	306	6.4
	대구	480	10.1
	인천	15	0.3
	광주	1	0.0
	대전	16	0.3
	울산	193	4.1
	세종	51	1.1
	경기	693	14.6
	강원	116	2.4
	충북	150	3.1
	충남	300	6.3
	전북	50	1.0

전남	4	0.1
경북	412	8.7
경남	594	12.5
제주	231	4.9
합계	4,762	100.0

[표 6]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사회)

	항목	빈도수(n)	백분율(%)
소속	다함께돌봄센터	54	17.9
	지역아동센터	138	4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8	35.8
	기타	2	0.7
	합계	302	100.0
직위	센터장	108	35.8
	팀장	72	23.8
	업무담당자	116	38.4
	기타	6	2.0
	합계	302	100.0
지역	서울	38	12.6
	부산	15	5.0
	대구	17	5.6
	인천	21	7.0
	광주	14	4.6
	대전	5	1.7
	울산	19	6.3
	세종	5	1.7
	경기	37	12.3
	강원	18	6.0
	충북	23	7.6
	충남	10	3.3
	전북	19	6.3
	전남	19	6.3
	경북	14	4.6
	경남	18	6.0
	제주	10	3.3
	합계	302	100.0

[표 기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부모)]

항목		빈도수(n)	백분율(%)
자녀학교 (중복응답 허용)	초등학교	581	45.5
	중학교	352	27.6
	고등학교	344	26.9
교육복지 대상여부 (중복응답 허용)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137	12.9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31	2.9
	특수교육 대상	19	1.8
	다문화가정 또는 북한이탈주민가정	12	1.1
	모름	29	2.7
	해당없음	836	78.6
지역	서울	388	37.6
	부산	72	7.0
	대구	45	4.4
	인천	51	4.9
	광주	27	2.6
	대전	28	2.7
	울산	11	1.1
	세종	4	0.4
	경기	271	26.3
	강원	9	0.9
	충북	9	0.9
	충남	21	2.0
	전북	16	1.6
	전남	10	1.0
	경북	28	2.7
	경남	40	3.9
	제주	1	0.1
	합계	1,031	100.0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별 교육복지정책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IP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다(Martilla & James, 1997).

(1) Borich 요구도 분석

Borich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교육복지정책의 '현재 상태(what is)와 '희망하는 상태(what should be)'간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수행도-중요도에 더하여 중요도 수준으로 가중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분석이 가능하다. Borich 요구도는 항목별로 요구도 산출 후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서 낮은 항목 순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요구도 수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으며, 요구도 수치가 낮을수록 순위가 낮다(Borich, 1980).

(2)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Locus for Focus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The Locus for Focus 분석은 Borich 요구도를 보완하여 우선순위를 좌표평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한 방식으로, 좌표평면의 '가로축(x 축)=미래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 '세로축(y 축)=미래 중요도'를 뜻한다. 따라서 좌표평면의 사사분면 중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 항목이 요구도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ink et al., 1991).

[그림 1] Locus for Focus Model

2사분면 미래 중요도 낮음 [미래수준-현재수준] 높음	1사분면(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미래 중요도 높음 [미래수준-현재수준] 높음
3사분면(우선순위가 가장 낮음) 미래 중요도 낮음 [미래수준-현재수준] 낮음	4사분면 미래 중요도 높음 [미래수준-현재수준] 낮음

4. 연구 결과

1) 교육복지 요구분석 결과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을 [표 8]과 같이 측정하였다.

[표 8]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우선순위 분석

요구	현재수준			중요수준			차이(gap)		Borich 요구도	우선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평균	t		
가정생활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3.36	0.96	21	4.19	0.80	6	0.82	57.06***	3.46	23
2. 방역 및 건강 지원	3.75	1.00	2	4.06	0.91	23	0.31	21.34***	1.69	38
3.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3.59	1.02	6	4.22	0.86	3	0.63	42.91***	3.55	22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	3.66	1.03	3	4.16	0.83	7	0.51	34.63***	2.84	29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상담지원	3.16	1.05	35	4.15	0.88	12	0.98	62.02***	5.46	3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 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3.15	1.03	36	4.13	0.84	15	0.97	61.65***	5.39	4
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90	1.04	39	3.96	0.92	30	1.07	64.85***	5.66	2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3.31	1.03	30	4.15	0.84	11	0.84	56.13***	4.68	6
학교생활										
9. 학교단위 교육복지체계 구축 강화	3.55	0.96	9	4.06	0.85	25	0.51	37.97***	2.75	30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3.45	1.01	14	4.27	0.80	1	0.81	57.04***	4.66	7
11.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생 방역 수칙 안내 지원	3.97	0.94	1	4.09	0.89	18	0.12	9.93***	0.67	39
12. 정보 DB 구축	3.52	0.94	10	4.02	0.85	28	0.50	38.35***	2.71	32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3.31	1.04	29	4.05	0.88	26	0.74	48.51***	4.00	17
14. 필수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	3.64	0.97	4	3.98	0.88	29	0.34	24.58***	1.82	37
15. 추가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	3.59	1.00	5	3.93	0.90	33	0.34	23.94***	1.82	36
16.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3.30	1.06	31	3.75	1.00	38	0.45	29.33***	2.24	35
17. 학교 밖 교육비용 지원	3.23	1.04	33	3.87	0.94	37	0.65	42.12***	3.37	24
18. 학생대상 장학금 지급	3.41	0.99	15	3.90	0.90	34	0.49	35.05***	2.54	34
19.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3.57	1.02	7	4.21	0.82	4	0.63	44.84***	3.57	21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3.27	1.03	32	4.03	0.88	27	0.76	51.42***	4.12	13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3.46	1.00	12	4.07	0.88	22	0.60	43.02***	3.29	25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3.39	1.03	17	4.22	0.85	2	0.83	55.36***	4.69	5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3.37	1.00	19	4.12	0.84	16	0.75	52.02***	4.13	12
24.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3.11	1.02	38	3.95	0.91	31	0.84	56.04***	4.44	9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3.32	1.02	28	4.14	0.86	13	0.82	55.62***	4.54	8
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체계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48	0.97	11	4.20	0.80	5	0.73	55.03***	4.11	14
27.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정보 제공	3.45	0.97	13	4.16	0.81	9	0.71	53.32***	3.94	18
28.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공동사업 기획·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3.39	0.99	18	4.06	0.84	24	0.67	49.76***	3.63	20
29.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체계화	3.57	0.97	8	4.16	0.83	10	0.59	44.49***	3.28	26
30. 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의 학생 사례관리 지원단 운영	3.34	1.00	24	3.94	0.91	32	0.60	43.45***	3.14	27
31. 주기적인 교육복지 요구조사 실시 및 분석	3.34	0.97	27	3.89	0.90	36	0.55	40.68***	2.89	28
32. 교육복지 지원대상별 지원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3.40	0.97	16	4.08	0.84	20	0.67	49.85***	3.68	19
33.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교육취약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3.37	0.97	20	3.90	0.90	35	0.53	39.32***	2.75	31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3.14	1.09	37	4.16	0.89	8	1.03	60.95***	5.73	1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3.34	1.00	26	4.07	0.84	21	0.74	52.34***	4.02	16
36. 대학생 멘토링 지원 (개별학생 또는 소그룹)	3.21	1.05	34	3.73	1.01	39	0.52	35.93***	2.59	33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34	0.99	23	4.08	0.85	19	0.74	52.68***	4.03	15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 (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	3.34	1.02	24	4.10	0.85	17	0.76	53.18***	4.15	11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3.35	1.01	22	4.14	0.84	14	0.78	55.61***	4.34	10

(1) 기술통계

현재 수준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19 대응 교육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11.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생 방역수칙 안내 지원'이 평균 3.97로 가장 잘 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2. 방역 및 건강 지원'이 평균 3.75,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이 평균 3.66으로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2. 방역 및 건강 지원'이 평균 3.75,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11. 코로나 19에 대비한 학생 방역수칙 안내 지원'이 평균 3.97,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29. 교육복지 우선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체계화'가 평균 3.57로 가장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래 수준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19 대응 교육복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이 평균 4.27로 향후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 요구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평균 4.22, '3.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이 평균 4.22로 중요한 교육복지 요구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3.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이 평균 4.22로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이 평균 4.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이 평균 4.2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응표본 t-test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교육복지 항목에서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미래 수준에 비해 현재 수준에는 개선되어야 할 차이(gap)가 있음을 시사한다.

(3) Borich 요구도 분석

교육복지 항목에 대해 Borich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이 요구도 5.73으로 최우선요구로 도출되었고, 이어서 '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도 5.66으로 우선순위 2위,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이 요구도 5.46으로 우선순위가 3위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서는 '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도 5.66으로 가장 높았고,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이 요구도 5.46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는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도 4.69로 가장 높았고,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이 요구도 4.66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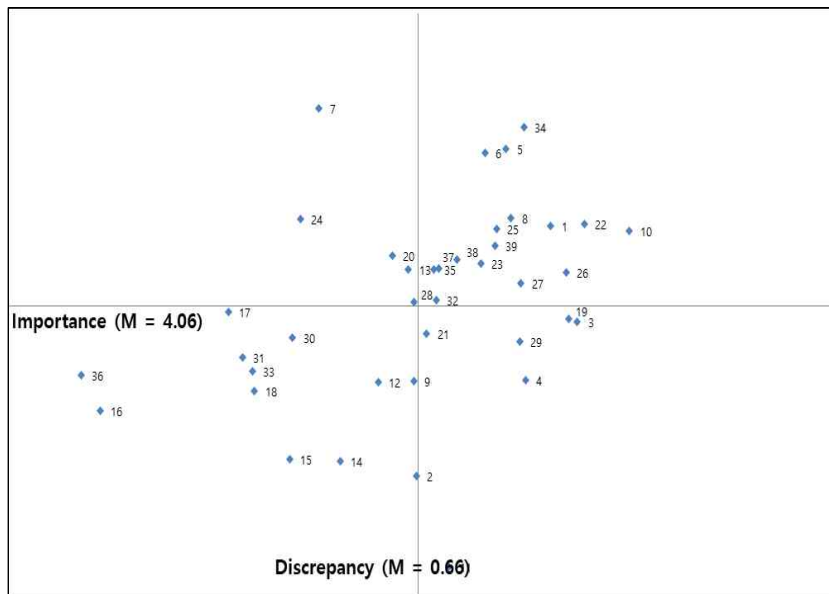
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체계에서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이 요구도 5.73으로 가장 높았고,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

보 공유'가 요구도 4.34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Locus for Focus 모델

교육복지 항목에 대해 요구의 우선순위를 시각화하고 최우선 순위군을 추출하기 위해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였다. Locus for Focus 모델은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과의 차이와 미래 중요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현재 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중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Locus for Focus 모델 시각화 결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미래 수준의 평균은 4.06이고,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 간 불일치 평균은 0.66으로 나타났다. 미래 수준 평균을 x축, 불일치 평균을 y축으로 요구들을 시각화하였을 때, 제1사분면에 속하는 요구들은 최우선 요구로 파악되었다. 최우선 요구에는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27. 취약학생 지원을 위

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정보 제공’, ‘32. 교육복지 지원대상별 지원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가 포함되었다.

(5) 최우선요구 도출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선요구를 도출하고, 각 요구의 시급도를 제시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제1사분면에 속한 교육복지 항목의 수만큼(17개) Borich의 교육요구도 상위 요구들을 추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우선순위 결정

교육복지	우선순위 도출방법		시급도	시급도 순위
	Borich 요구도 순위	The Locus for Focus 모델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1	0	4.12	8
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3.86	33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	3	0	4.07	13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	4	0	4.04	17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0	4.17	3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6	0	4.09	12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7	0	4.23	1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8	0	4.09	10
24.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9		3.89	29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10	0	4.11	9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의료비 지원	11	0	4.07	14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12	0	4.06	15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13		4.01	23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14	0	4.16	4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15	0	4.06	16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16	0	4.03	20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17		3.95	25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육복지 요구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로 나타났다.

시급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복지 개선요구는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서는 총 3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총 4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총 6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순으로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만족도 요구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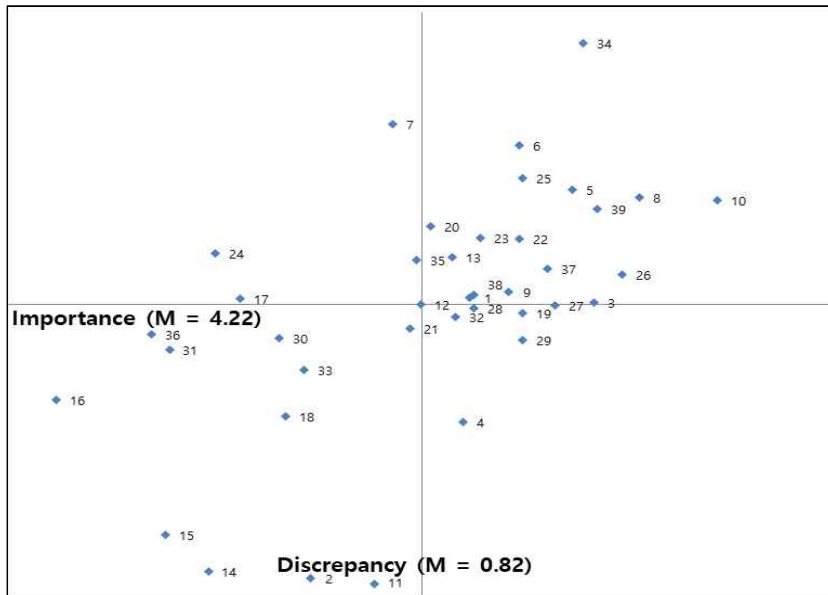
(1) 교육청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요구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 교육복지 항목에 대한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을 측정하였다.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교육복지 항목에서 현재 수준과 미래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바람직한 미래 수준에 비해 현재 수준에는 개선되어야 할 차이(gap)가 있음을 시사한다.

위드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를 종합하고 최우선요구를 도출하여 각 요구의 시급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3] Locus for Focus 모델 시각화 결과(교육청)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육 복지 요구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로 나타났다.

시급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복지 개선요구는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

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생활에서는 총 3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총 6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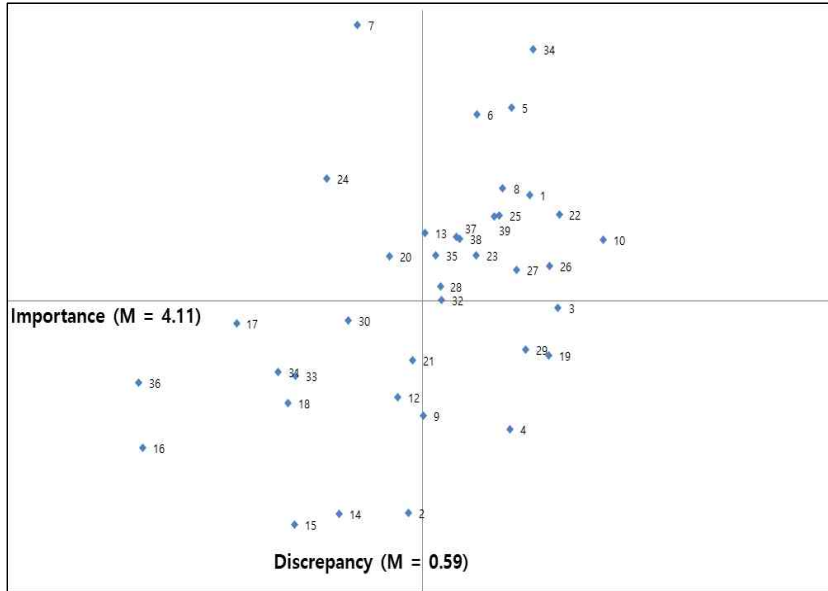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는 총 4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2) 학교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학교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육복지 요구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로 나타났다.

시급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복지 개선요구는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Locus for Focus 모델 시각화 결과(학교)



가정생활에서는 총 4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총 5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1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총 7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27.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정보 제공’,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 및 기타 의료비 지원’,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순으로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사회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육복지 요구는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4.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19.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28.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공동사업 기획·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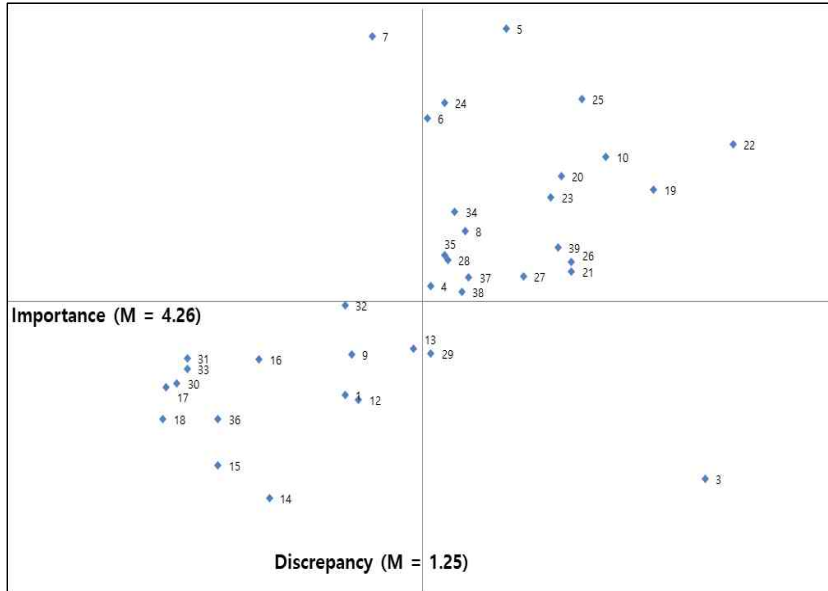
시급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복지 개선요구는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19.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순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생활에서는 총 4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총 8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19.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 '20.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24.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총 7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7. 정부·지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과의 연계', '39.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 등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공유', '27.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정보 제공', '35.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34. 교육복지 지원 전문 인력 확충', '28.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공동사업 기획·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그림 5] Locus for Focus 모델 시각화 결과(지역사회)



3) 교육복지 수요자의 요구분석 결과

최우선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복지 수요자(학부모)를 대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육복지 요구는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6. 가정 내 학습 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 지원’,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19. 기초학력 보충 및 증진 프로그램 지원’,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 ‘17. 학교 밖 교육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등)’,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15. 추가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방과후 활동 참여 비용, 문제집·참고서 구입 등)’, ‘32. 교육복지 지원대상별 지원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치과·안과 진료, 안경구입 등 포함) 및 기타 의료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시급도를 고려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교육복지 개선요구는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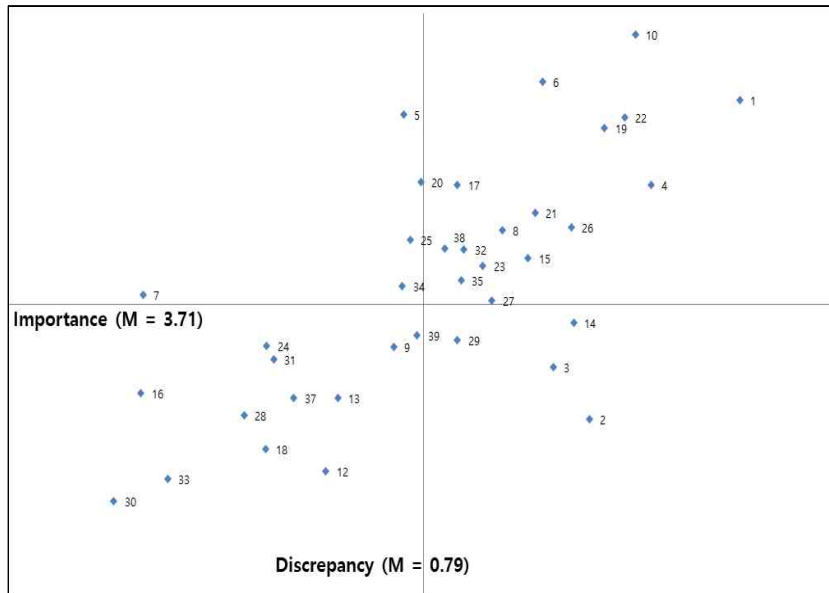
가정생활에서는 총 5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 가정생활지원 및 가족지원’, ‘4. 가정 내 원격학습을 위한 정보화 지원’, ‘8.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6. 가정 내 학습준비를 위한 학습클리닉,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5.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 상담지원(상담,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서는 총 5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 '2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 '17. 학교 밖 교육비용 지원(교통비, 식비 등)', '15. 추가 학교교육활동 교육비 지원(방과후 활동 참여 비용, 문제집·참고서 구입 등)'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총 3개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38.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지원 및 기타 의료비 지원', '26.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 학생 지원', '32. 교육복지 지원대상별 지원 유형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체계화' 순으로 시급도가 높았다.

[그림 6] Locus for Focus 모델 시각화 결과(학부모)



5. 결론

1) 결론

Borich 요구도 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 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항목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델 기준을 만족하면서 Borich 요구도 순위가 높은 순으로 배치된 영역의 항목들은 가정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체계 영역의

항목들이므로 나타났다. 이를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으로 구분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영역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은 지역사회 및 교육청 지원 체계 영역임을 뜻한다. 그러나 영역 내 항목들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 항목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영역의 문항수가 달라 단순 비교보다는 Borich 요구도 순위 기준으로 대상자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교육청과 지역사회 관계자 응답 결과에는 학교생활 관련 항목이, 학교 관계자 응답 결과에는 가정생활 관련 항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생활 지원을, 그리고 학교는 가정생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혜자인 학부모는 학교생활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접적으로 가정에 지원되는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orich 요구도 순위에는 포함되었으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1사분면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 '7.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4.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학습관리 지원' 등은 중요 수준-현재 수준의 차이는 크지만 중요 수준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들이기 때문에 The Locus for Focus 모델의 1사분면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항목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학교급별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모든 학교급(초, 중, 고)에서 공통적으로 '23.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탐색 활동 및 상담 지원', '25. 교우관계 등 관계성 회복 지원'에 우선 지원을 하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2.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중학교의 경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과 '22.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 '13.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10.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 발굴'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복지 지원(교육청/학교/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및 만족도 요구분석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교육복지 수요자(학부모)의 요구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이 재설계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복지

자원들을 활용한 교육복지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위드코로나19의 교육복지정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노기호(2012), 정필운(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법령 개정 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정책의 요구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질적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드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등 교육복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작성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복지 종사자들이 스스로 정의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 바 있다(김정덕, 장연진, 2015).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교육복지 추진 방향 정립, 새로운 복지국가 설계 등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요구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개선안은 첫째,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여 교육복지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학교급간 연계의 강화, 교육복지안전망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논의되어야 하며 학교급간 학생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분절적인 교육복지 학생지원 사업 및 시스템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 학생지원 정책들(대상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 탈북가정자녀 지원사업, 특수교육, 농어촌 지원사업 등, 내용별: 심리상담-위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Wee 센터, 기초학력증진사업-협력교사, 학습클리닉 등)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복지 대상 발굴을 위한 초-중-고 연계 DB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DB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여 교육복지 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맞춤형 종합지원(total care)의 강화와 교육복지 유형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 위드코로나 시기 대응 지원항목 및 지원범위의 확장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학생맞춤형 종합지원의 강화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여 위기상황 개입, 교육복지지원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학교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생 맞춤형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이는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복지 유형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은 비대면 상황에서 다양화 된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요구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이 유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을 허용하고 학교 내 지원항목과 범위에 대한 자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여 교육복지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류방란 외, 2010) 교육복지 정책 결정 및 실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화하고,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전달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이 명확화 되어야 하며 특히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여 위드코로나 시기 교육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지원 역량이 무엇보다 강조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혜정 (2021). 코로나 19 전후 다문화 정보격차 비교분석-신문기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7(6), 37-54.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 (2020). 코로나 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권연하, 박세진, 이현숙 (202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 교육격차의 쟁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625-644.
- 김민희 (2020).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장학제도) 장학생 성장기록 분석 연구. 교육부.
- 김성식, 송지훈, 유기용, 장덕호, 하봉운 (2020). 교육복지 내실화 방안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김정덕, 장연진 (2015). 교육복지 개념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 235-265.
- 노기호 (2012).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 *헌법학연구*, 18(3), 83-113.
- 류방란, 이광현, 이기준, 이은미, 현대호 (2010). 교육복지 지수 개발 및 DB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남기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 *한국초등교육*, 32(2), 17-32.
- 박미희 (2020).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송지훈, 우명숙, 김민희, 이선호, 이해진 (2020).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개편방향 연구.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 송지훈, 안해정, 이성희, 이선영, 유명현, 명준희, 박민정, 임세민, 박지애(202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송지훈, 김민희, 이지혜, 김성기, 이진주, 이현주, 주라헬, 박지애 (2022).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의 성과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성열관, 임동희, 김종희, 송지훈, 박대선(2021). 교육복지안전망 운영모델 수립 연구.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 이선호, 김효정, 김혜자, 김용남, 김민희, 오병호, 송기창 (2018). 교육복지지원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예슬, 신범철, 정양순 (2021).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교육학연구*, 59(1), 131-165.
- 이희현, 황준성, 유경훈, 정동철, 이주하, 김성기 (2019).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김경애, 김효정, 유경훈, 이성희, 정동철, 황준성, 성열관 (2020).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필운 (2015). 교육영역에서 복지국가원리의 구현 -쟁점과 과제, *헌법학연구*, 21(4), 71-100.
-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ink, O. G. Shultz, J. M. & Mink, B. P. (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Somerset Consulting Group.

Abstract

Educational Welfare Needs Analysis in Response to COVID-19

Min-Hee Kim^{*} · Yunsoo Lee^{**} · Ji-Hye Lee^{***} · Ji Hoon Song^{****} · Junhee Myung^{*****} · Myunghyun Yoo^{*****}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and supporting educational welfare recipients, requiring a different approach to the existing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ducational welfare needs during the COVID-19 period, with implications for discovering new recipients, enhancing support methods, and redesigning the system. This study employed several methods, including IPA analysis, Borich, and Locus for Focus analysis, to conduct a needs analysis involving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other stakeholders. Given the circumstances of COVID-19, the study focused on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hat utilize resources outside of schools, identifying the needs of education offic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parents. This study also examined educational welfare policy measures to meet the needs of these stakeholders. The needs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of existing educational welfare research, involving various subjects and providing fundamental data to uncover blind spots in welfare and prepare appropriate support measure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e needs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the study presents a plan to improve educational welfare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plan encompasses policy suggestion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and ensure effective support for educational welfare recipients.

Keywords: educational welfare, need analysis, COVID-19, policy suggestion

◆ 2023. 4. 12. 접수 / 2023. 5. 21. 1차수정 / 2023. 6. 11. 게재확정

* Professor, Daegu University (minhee1016@gmail.com)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liy86@hanyang.ac.kr)

*** Professor, Seowon University (wisdom56@hanmail.net)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jhsong77@hanyang.ac.kr)

***** Professor, Soongyei Women's University (jhmyung80@swec.ac.kr)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lithe02@hanyang.ac.kr)